

페퍼스 '최다승'·현대 '최단기간 1위 달성'...기록의 V리그



페퍼스, 11승 달성 기대...28일 기업은행 상대 원정 남자부, 현대캐피탈 '최다 승수·최고 승점' 기록 관심

2024-2025시즌 V리그 정규리그가 단 하루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한 주 프로배구 남녀부의 새로운 도전과 전략적 선택이 관심을 모은다.

먼저, 역대 V리그 '최단 기간 1위'를 달성한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26승 4패·승점 76)의 끝까지 않은 도전에 시선이 쏠린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2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4위 우리카드 우리WON(14승 16패·승점 40)에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며 잔여 6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리그 1위를 조기 확정했다.

지난 2017-2018시즌 4경기를 남긴 채 최단 기간 우승을 확정지었던 현대캐피탈은 이날 승리로 자체 기록을 경신하며 7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리그를 제패한 현대캐피탈은 이제 '최고 승점'과 '최다 승수'라는 또다른 기록을 바라본다.

현재 남자부 최고 승점은 지난 2011-2012시즌과 2014-2015시즌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작성한 84점으로 현대캐피탈은 현재 8점 뒤쳐있지만, 남은 6라운드에서 3경기만 3-0 혹은 3-1로 이기면 그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상상 최다 승수 기록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현대캐피탈은 남자부 35경기 체제였던 지난 2005-2006시즌 31승 4패, 36경기 체제였던 지난 2015-2016시즌 28승 8패로 1위를 차지했다. 남은 6경기에서 전승을 거둘 경우 완전한 새 역사를 쓸 수 있다.

여자부에서는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2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21승 9패·승점 58)와 '3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18승 12패·승점 57)의 성적에 관심이 쏠린다.

정관장과 현대건설은 승점 1점 차로 2-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은 6라운드 초반부의 승점 확보에 따라 양 팀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 이하일 때 준플레이오프가 성사되지만 승점 37을 기록 중인 4위 IBK기업은행(12승 18패)과 현대건설의 격차는 승점 20으로, 준플레이오프의 개최 가능성이 희박하다.

양 팀은 정규리그 2위 확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과 추후 장기전을 고려해 3위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들어가는 것,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은 지난 21일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전을 마친 후 "6라운드에는 플레이오프를 잘 치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며 6라운드 총력전을 벌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럴 경우 칼자루를 쥐게 될 정관장과 고희진 감독이 펼치게 될 전략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지난 19일 안방인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2위 정관장을 꺾고 '10승'을 신고한 페퍼저축은행 A1페퍼스(10승 20패·승점 31)의 '11승 달성' 여부도 관심사다.

페퍼스는 '주장' 박정아와 아포지 테일러의 활약을 앞세워 정관장을 압도했다.

페퍼스는 이후 23일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폴세트 점전 끝에 패했지만 창단 4시즌 만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음 시즌 볼배구 진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번 시즌 볼배구 진출은 실패했지만, 이들의 도



2024-2025시즌 V리그 정규리그가 단 하루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한 주 프로배구 남녀부의 새로운 도전과 전략적 선택이 관심을 모은다. 페퍼저축은행 A1페퍼스 장위(왼쪽)와 테일러(오른쪽)가 지난 23일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의 5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KOVO 제공)

전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정관장전 이후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다음 목표에 대해 "10승을 달성했지만 (두 자릿 수는)

그 위로 쭉 열려있다. 시즌 마무리까지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 경기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될 페퍼스는 오는

28일 오후 7시 화성종합철강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과 6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남도청·광주서구청 펜싱팀, 전국실업선수권대회 금빛 찌르기

전남 박소형 에페 개인전 금
광주 남·여 단체전 동반 우승



열린 2025 전국남녀중독별오픈펜싱선수권 겸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우승한 이후 이번에도 개인전 정상에 등극하며 실력을 뽐냈다.

전남도청과 광주서구청 펜싱팀이 제27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펼쳤다.

특히 전남도청 박소형(사진)은 지난 21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마무리된 이번 대회에서 에페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단체전 준우승도 이끌었다.

박소형은 여자일반부 에페 개인전 16강에서 같은 팀 박세룡을 15-10으로 꺾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고 8강에서는 충북도청의 노선경을 15-13으로 제압하며 4강에 진출했다.

4강에서 박하빈을 15-11로 제친 박소형은 결승에서는 화성시청의 이수빈을 15-9로 누르며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박소형은 지난 1월

박소형은 "요즘 체력 훈련과 기술 연습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잘 나타난 것 같다. 감동을 감독님께서 부담을 덜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서구청은 이번 대회에서 남·여 단체전 동반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이정함·김재원·이승현·김대원은 남자일반부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익산시청을 37-2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강영미·최은숙·정지윤·김수빈은 전남도청과 맞붙은 여자일반부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45-40으로 승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이정함과 정지윤이 각각 은메달,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이민아, 신생 캐나다 여자축구리그 오타와 입단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83경기에 출전한 베테랑 미드필더 이민아가 '신생' 캐나다 여자축구 노던슈퍼리그(NSL) 오타와 래피드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오타와 구단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민아의 입단을 발표했다.

이민아는 2012년부터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인천 현대제철에서 뛰다가 2018년 아이낙 고베(일본)에 입단하며 처음으로 외국 리그를 경험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다시 현대제철 유니폼을 입고 WK리그를 누볐던 이민아는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에 신생 캐나다 리그에서 도전을 택했다.

1991년생인 이민아는 수준 높은 선수들과 경쟁하고픈 마음에 최근 몇 년간 외국 리그로 진출을 꾀해왔다. 실제로 독일·스페인 팀과 협상 마무리 단계까지 갔으나 이적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민아는 오타와에 10일 먼저 입단한 국가대표 측면 자원인 추효주와 한술밥을 먹는다.

캐나다의 NSL은 세계 5대 여자프로축구리그를 목표로 2025년 4월 공식 출범한다. 원년에는 이민아, 추효주가 뛰는 오타와를 포함한 6개 팀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NSL은 리그 차원에서 전체 선수들에게 최소 5만달러(약 7200만원)의 연봉을 보장한다. 선수 연봉 상한이 5000만원인 WK리그보다 조건이 좋다. 각 팀의 샐러리캡(총연봉 상한선)은 160만달러(22억9000만원)다.

이는 자국 선수들의 유출을 막고, 기량이 뛰어난



한 선수들을 전 세계에서 데려와 리그 경쟁력을 단숨에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제 막 여자프로리그가 출범하는 캐나다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6위로, 우리나라(20위)보다 높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역대 최고 성적...동계스포츠 불모지 편견 깨 값진 결실"

전남선수단에 축하·지원 약속



이런 값진 결실"이라며 "바이에슬론 전략 육성, 학

전남선수단이 선보인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활약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동계스포츠 불모지라는 편견을 깨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축하했다.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9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로 역대 최고득점인 373점을 기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치하문을 통해 "전남의 자랑스러운 꿈나무들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 지도자, 불굴의 의지로 최고의 경기를 펼친 선수들의 열정이 하나 되어

교 운동부와 방과 후 스포츠클럽 운영, 전남체육중 스키부 창단 등 체계적인 노력이 이번 성과의 밑바탕이 되었다. 체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선수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 강원도 일원에서 폐막했으며 전남은 크로스컨트리 이윤주(5관왕), 조다은(4관왕), 알파인 강다현(4관왕) 등 다수의 다관왕을 배출하며 선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탄소중립, 이끼로 말한다! : 원예복지협동조합 **탄소중립, 이끼로 말한다!** 원예복지협동조합 일시 : 2025-2-21(금)-2025-3-23(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